

부산·울산·경남 지역 졸업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조사

경남정보대학* · 대전성모병원

김지혁* · 이건철* · 권혁수

The Study on the Interest of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The undergraduate students of dept. of physical therapy in Busan, Ulsan and Kyungnam)

Kim, Chi-Hyok* · Lee, Geon-Chul* · Kwon, Hyuk-Soo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Dept. of Physical Therapy, Daegwon Sungmo Hospital

ABSTRACT

Many physical therapy who graduat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nterested in physical therapy specialist. The boundary of physical therapy specialist is consist of 7 parts: CCS(Cardiopulmonary Certified Specialist), ECS(Clinical Electrophysiologic Certified Specialist), GCS(Geriatric Certified Specialist), NCS(Neurologic Certified

Specialist), NCS(Neurologic Certified Specialist), OCS(Orthopaedic Certified Specialist), PCS(Pediatric Certified Specialist), SCS(Sports Certified Specialis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undergraduate student's interest about the area of special physical therapy and its academ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7 to 24, 2004 and 158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and analyzed. It was for undergraduate students who major in physical therapy in college and university which are located in Busan, Ulsan and Kyoungnam province.

The result is follows:

1. The research about the study of physical therapy after graduation was that 45.5% of female thought that they going to study as possible as they can was the best. In the case of men, 54.3% of male thought that they going to study was the best.

2. The result about recognition of special physical therapy was that 62.0% of people answered CCS, 69.6% of people answered GCS. The most familiar part of special physical therapy at course of school curriculum was that 88.0% of people answered OCS, and 84.2% of people answered NCS.

3. The result about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special physical therapy was that 68.6% of male and 36.1% of female answered OCS. On the other hand, the least part that people doesn't care was that 41.2% of male answered PCS, and 41.0% of female answered CCS.

4. About educational matters of special physical therapy and its academy was that 60% of answered 'Not enough'. An answer to question of special physical therapy and its academy's educational necessity. At the a course of faculty and clinical practice was that 58.9% of answered 'somewhat necessary'. After graduation, study a plan of special physical therapy was that 59.5% of answered 'immediate academy'.

5. Recognize scale in alternation physical therapy, think of extend physical therapy's territory is 'necessary of extend territory' was 78% the highest answer. 57.6% of answered was concerned about alternating physical therapy, and want to study.

Key Word : Specialist, Academy, Alternating physical therapy

서 론

산업의 발달과 스포츠의 대중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각종 직업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스포츠 사고가 날로 늘고 있다. 또한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성질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민경옥, 1997).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의학과 더불어 재활의학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 인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김선엽, 1990). 재활분야에서 물리치료사 고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연맹 물리치료사”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보건 의료 전문직으로서 포괄적인 의료 기술을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CPT, 1982). 우리나라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 약품을 사용관리하며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였다(대통령령, 1982).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직접 환자치료에 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치료기술 습득이 요구된다(문교부, 1984). 그러나 국내 물리치료의 현실은 이직률이 높아 임상경험이 많고 수련이 잘 된 물리치료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양

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수련 물리치료사 제도를 두어 임상전문가 배출을 제도화해야 한다(배성수 외, 1998). 하지만 물리치료(학)과의 현행 교육과정 운영은 3년제 대학에서 교양 15-16학점, 전공 104-105학점 합계 120학점 이상을 졸업학점으로 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서는 교양 40학점, 전공 100학점 이상을 졸업학점으로 하고 있다(김은주, 1988). 전공과목 중 전문물리치료영역과 관련된 과목은 신경계, 정형 물리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실제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졸업 후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치료에 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후에도 많은 물리치료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 물리치료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또한 연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전문 물리치료영역에 대한 학회와 모임이 개설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많은 분야의 학회들이 생겨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 졸업을 앞둔 대부분의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 물리치료영역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진로와 전문 물리치료분야 및 각 학회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

산·울산·경남에 있는 5개의 물리치료(학과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80부를 배포하여 160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답변이 불완전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158부를 자료처리와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전문물리치료 분야 및 학회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 특성 4문항, 졸업 후 물리치료 및 전문물리치료 분야의 학습 관련 사항 5문항,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도 8문항,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관심도 4문항,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8문항, 전문물리치료 현실에 대한 인식도 1문항,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2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전문물리치료의 기준은 ABPTS(American Board of Physical Therapy Specialties)에서 인정하는 7개의 전문물리치료 영역인 전기·광선,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노인, 스포츠, 심·폐 물리치료로 구분하였다.

분과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기준은 대한물리치료사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서물리치료 분과학회, 보바스 물리치료 분과학회, 스포츠 물리치료 분과학회, AKA 물리치료 분과학회, MFR 물리치료 분과학회, 정형물리치료 분과학회, 칼텐보른에비엔스 분과학회, PNF 물리치료 분과학회, 기공대체 물리치료 분과학회, 발반사대체 물리치료 분과학회, 인체역학대체 물리치료 분과학회, 테이핑대체 물리치료 분과학회, 통증 물리치료 분과학회, 척추교정 물리치료 분과학회,

노인 물리치료 분과학회, MTT 분과학회, 건강관리 물리치료 분과학회, 수중 물리치료 분과학회, 가정 물리치료 분과학회, 인체발란스 물리치료 연구회, Needle 물리치료 연구회, 수지반사대체 물리치료 연구회로 구분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자료를 부호화 한 후 SPSS 10.0 Version을 사용하였다.

-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 (2) 졸업 후 물리치료 분야의 학습관련 사항에서 독립변수를 성별과 연령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학부 교과과정에서 접해본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도에서 독립변수를 각 학 교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관심도에서 독립변수를 성별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5) 그 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조사의 제한점으로는 배포한 설문지 중 88.9%만 회수되었고, 또한 설문지의 응답이 미기록 상태가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지역이 부산·경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국 물리치료과 졸업반 학생에게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할 수 없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158 (100%)

변수	항목	빈도 (%)	계
성별	남	35 (22.2)	158(100)
	여	123 (77.8)	
연령	만 24세 미만	117 (74.1)	158(100)
	만 24세 이상	41 (25.9)	
결혼여부	미혼	154 (97.5)	158(100)
	기혼	4 (2.5)	
학교 명	A	33 (20.9)	158(100)
	B	30 (19.0)	
	C	31 (19.6)	
	D	29 (18.4)	
	E	35 (22.2)	

2.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로는 여자가 77.8%로 남자 22.2% 보다 많았고, 연령분포는 만24세 미만이 74.1%, 만 24세 이상이 25.9%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97.5%, 기혼이 2.5%이었다. 설문 대상 학교는 A대학에서는 20.9%, B대학에서는 19.0%, C대학에서는 19.6%, D대학에서는 29명 18.4%, E대학에서는 22.2%로 나타났다(표 1).

2) 졸업 후 물리치료 및 전문물리치료 분야의 학습관련 사항

(1) 졸업 후 물리치료 분야의 학습관련사항

졸업 후 물리치료 분야의 공부에 대한 물음에서 전체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여 45.5%, 남 28.6%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여 39.0%로 남 54.3%로 나왔다. 또한 연령을 만 24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에는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만 24세 미만 46.2%, 만 24세 이상 29.3%로 나왔다. 할 생각이라는 물음에는 만 24세 미만 38.5%, 만 24세 이상 53.7%로 나왔다(표 2).

지속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는 표 2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와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총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졸업 후 물리치료 분야의 학습 관련사항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적으로나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관심 있는 특정 전문 물리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각각 62.1%, 69.2%로 높게 나왔다. 또한, 연령을 만 24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에도 관심 있는 특정 전문 물리치료 영역이란 응답이 만 24세 미만 62.6%, 만 24세 이상 82.4%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 3).

표 2. 졸업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학업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의향 N = 158(100%)

항목	성별		연령		
	남 (%)	여 (%)	만24세 미만	만24세 이상	
지속적인 학업에 대한 의향	할 생각이다.	19(54.3)	48(39.0)	45(38.5)	22(53.7)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	10(28.6)	56(45.5)	54(46.2)	12(29.3)
	아직은 잘 모르겠다.	6(17.1)	13(10.6)	14(12.0)	5(12.2)
	하지 않을 생각이다.	0(0)	6(4.9)	4(3.4)	2(4.9)
	기타	0(0)	0(0)	0(0)	0(0)
계	35(100)	123(100)	117(100)	41(100)	

표 3. 졸업 후 지속적인 학업을 희망하는 물리치료 분야 N = 133 (100%)

항목	성별		연령		
	남 (%)	여 (%)	만24세 미만	만24세 이상	
지속적인 학업을 희망하는 분야	일반적인 물리치료	4(13.8)	18(17.3)	21(21.2)	1(2.9)
	관심 있는 특정 전문 물리 치료 영역	18(62.1)	72(69.2)	62(62.6)	28(82.4)
	물리치료와 관련한 대체 학문	4(13.8)	8(7.7)	9(9.1)	3(8.8)
	물리치료와 관련 있는 다른 학문	3(10.3)	6(5.8)	7(7.1)	2(5.9)
	기타	0(0)	0(0)	0(0)	0(0)
계	29(100)	104(100)	99(100)	34(100)	

(2)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 분야의 학습관련 사항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남자는 할 생각이다가 55.9%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가 54.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을 만 24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만 24세 미만은 여건이 된다

면 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만 24세 이상에서는 할 생각이다가 53.8%로 가장 높았다(표 4).

전문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의 목적은 표 5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와 하지 않을 생각이다를 제외한 총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40.27%로 가장

표 4.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에 대한 조상대상자들의 지속적인 학업 의향 (N=143, 결측값=15)

항목	성별		연령		
	남(%)	여(%)	만24세미만	만24세이상	
전문물리 치료에 대한 학 업 의향	할 생각이다.	19(55.9)	35(32.1)	33(31.4)	21(55.3)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	9(26.5)	59(54.1)	56(53.3)	12(31.6)
	아직은 잘 모르겠다.	6(17.6)	13(11.9)	14(13.3)	5(13.2)
	하지 않을 생각이다.	0(0)	2(1.8)	2(1.9)	0(0)
	기타	0(0)	0(0)	0(0)	0(0)
계	34(100)	109(100)	105(100)	38(100)	

표 5.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의 목적 N=122(100%)

항목	빈도 (%)
학부과정에서 배울 수 없으므로	6(4.9)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18(14.8)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42(34.4)
타 물리치료사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8(6.6)
치료 대상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48(39.3)
기타	0(0)
계	122(100)

높았고, 다음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35.2%로 높게 나왔다(표 5).

3)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도

(1)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도

본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물음에는 심·폐 물리치료와 노인 물리치료가 각각 62.0%, 69.6%로 타 전문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대중매체 혹은 소개강좌 등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는 전문 물

리치료 영역에 대한 물음 역시 심·폐 물리치료와 노인 물리치료가 각각 11.4%, 20.9%로 타 전문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왔다(표 6).

학부 교과과정에서 접해 본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물음에는 A대학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신경계 물리치료가 각각 91.0%로 가장 높게 나왔고, B대학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신경계 물리치료가 각각 9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C대학에서는 소아 물리치료가 9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D대학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93.1%로 가장

표 6. 전문영역에 대한 인식도 복수 선택

N = 158 (100%)

	항목	빈도 (%)
알고있는 영역	전기·광선 물리치료	123(77.8)
	근·골격계 물리치료	149(94.3)
	신경계 물리치료	152(96.2)
	소아 물리치료	144(91.1)
	노인 물리치료	110(69.6)
	스포츠 물리치료	121(76.6)
	심·폐 물리치료	98(62.0)
직·간접적으로 접해 본 영역	전기·광선 물리치료	75(47.5)
	근·골격계 물리치료	103(65.2)
	신경계 물리치료	100(63.3)
	소아 물리치료	71(44.9)
	노인 물리치료	33(20.9)
	스포츠 물리치료	59(37.3)
	심·폐 물리치료	18(11.4)

표 7. 학부 교과과정에서 접해본 전문물리치료 영역

항목	학교명				
	A	B	C	D	E
전기·광선 물리치료	29(87.9)	26(86.7)	26(84.9)	26(89.6)	31(88.6)
근·골격계 물리치료	30(91.0)	29(96.7)	22(71.0)	27(93.1)	31(88.6)
신경계 물리치료	30(91.0)	29(96.7)	25(80.6)	17(58.6)	32(91.4)
소아 물리치료	10(30.3)	28(93.3)	28(90.3)	26(89.7)	27(77.1)
노인 물리치료	3(9.1)	10(33.3)	23(74.2)	1(3.4)	10(28.6)
스포츠 물리치료	18(54.5)	10(33.3)	27(87.1)	8(27.6)	26(74.3)
심·폐 물리치료	7(21.2)	28(93.3)	5(16.1)	2(6.9)	2(5.7)
계	33(100)	30(100)	31(100)	29(100)	35(100)

A(N) = 33 (100%), B(N) = 30 (100%), C(N) = 31 (100%), D(N) = 29 (100%),
E(N) = 25 (100%)

높게 나왔다. E대학에서는 신경계 물리치료가 91.4%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 7).

(2) 분과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인식도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는

표 8. 분과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인식도 복수 선택가능

N = 158(100%)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동서물리치료 분과학회	7(4.4)	통증물리치료 분과학회	13(8.2)
	보바스물리치료 분과학회	78(49.4)	척추교정물리치료 분과학회	16(10.1)
	스포츠물리치료 분과학회	29(18.4)	노인물리치료 분과학회	14(8.9)
	AKA물리치료 분과학회	4(2.5)	MTT 분과학회	1(0.6)
직·간접	MFR물리치료 분과학회	19(12.0)	건강관리물리치료 분과학회	1(0.6)
적으로	정형물리치료 분과학회	67(42.4)	수중물리치료 분과학회	17(10.8)
접해 본	칼텐보른 에비엔스 분과학회	20(12.7)	가정물리치료 분과학회	6(3.8)
분과학회	PNF물리치료 분과학회	71(44.9)	인체발란스물리치료 연구회	4(2.5)
및	기공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0(0)	Needle물리치료 연구회	6(3.8)
연구회	발반사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1(0.6)	수지반사대체물리치료 연구회	0(0)
	인체역학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1(0.6)	기타	0(0)
	테이핑대체물리치료 분과학회	48(30.4)		

분과학회 및 연구에 대한 물음에는 보바스 물리치료 분과학회 49.4%, 정형물리치료 분과학회 42.4%, PNF물리치료 분과학회 44.9%로 높게 나왔다(표 8).

(3) 국내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운영방식
현재 국내의 전문물리치료 영역은 ABPTS의 분류와 달리 분과학회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운영방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란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46.5%, ABPTS의 분류

표 9. 국내 전문물리치료 영역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 (%)
	ABPTS의 분류에 맞게 7개 전문 영역으로 맞춰나가자.	37(23.6)
국내 전문물리치료 영역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	현 국내의 분과학회별 운영이 좋은 것 같다.	5(3.2)
	국제형식과 국내의 방식이 혼합된 형태가 좋다.	41(26.1)
	잘 모르겠다.	73(46.5)
	기타	1(0.6)
	계	157(100) 결측값=1

표 10.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관심도

항목	성별		계	
	남	여		
가장 관심이 많은 전 문물리치료 영역	전기·광선 물리치료	0(0)	6(4.9)	6(3.8)
	근·골격계 물리치료	24(68.6)	44(36.1)	68(43.3)
	신경계 물리치료	4(11.4)	31(25.4)	35(22.3)
	소아 물리치료	1(2.9)	26(21.3)	27(17.2)
	노인 물리치료	3(8.6)	7(5.7)	10(6.4)
	스포츠 물리치료	2(5.7)	7(5.7)	9(5.7)
	심·폐 물리치료	1(2.9)	1(0.8)	2(1.3)
계	35(100)	122(100)	157(100) 결측값=1	

에 맞게 7개 전문 영역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좋다 23.6%, 국제형식과 국내의 방식이 혼합된 형태가 좋다 26.1%로 높게 나왔다(표 9).

나누어 보았을 때, 남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68.6%로 가장 높았고, 여자 또한 36.1%로 가장 높았다(표 10).

4)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관심도
가장 관심이 많은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반적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3.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별로

5)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과정에서의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관한 교육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표 11.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에서 전문물리치료영역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

항목	빈도 (%)	
학부과정에서 전문물리치 료 영역에 관한 교육	매우 충분했다.	1(0.6)
	어느 정도 충분했다.	53(33.5)
	충분하지 못했다.	96(60.8)
	매우 충분하지 못했다.	8(5.1)
임상실습에서 전문물리치 료 영역에 관한 교육	매우 충분했다.	2(1.3)
	어느 정도 충분했다.	54(34.1)
	충분하지 못했다.	95(60.2)
	매우 충분하지 못했다.	7(4.4)
계	158(100)	

표 12.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항목	빈도 (%)
학부과정 및 실 습에서의 전문물 리치료 관련교육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다.	52(32.9)
	어느 정도 필요하다.	93(58.9)
	필요 없을 것 같다.	4(2.5)
	전혀 필요 없다.	0(0)
	잘 모르겠다.	8(5.1)
소개강좌들을 통한 개념정도		41(25.9)
학부과정에서 전 문물리치료 관련 교육수준	기초과정	99(62.7)
	심화과정	12(7.6)
	학부과정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1(0.6)
	기타	4(2.5)
졸업 후 전문물 리치료 공부 방 법	관련 학회를 통해서	94(59.5)
	관련 병원 또는 기관에 취업을 통해서	26(16.5)
	진학을 통해서	8(5.1)
	스터디 그룹 등의 소모임을 통해서	23(14.6)
	독학	4(2.5)
	기타	2(1.3)
계		157(99.4) 결측값=1

못했다가 60.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상
실습에서는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관한 교
육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못했
다 60.2%가 가장 많았다(표 11).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에서의 전문물리치
료 및 분과학회 관련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58.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전문 물리치료
및 분과학회 관련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물음에는 기초과정이 62.7%
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졸업 후 전문물리치
료에 대해 공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
겠는가라는 물음에는 관련 학회를 통해서가

59.5%로 가장 높았다(표 12).

전문 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
을 위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는 충
분하지 못했다가 7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횟수)가 적당한가 라는 물음에 4회/년 34.8%
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학기를 기준으로 했
을 때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
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이 실시된다면 그 시
기는 언제가 적당한가라는 물음에는 언제라
도 상관없다가 34.8%, 여름 방학 31.0%, 겨울
방학 22.2%로 가장 높게 나왔다(표 13).

표 13.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의 교육의 만족도 및 희망하는 정도

	항목	빈도 (%)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 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만 족도	매우 충분했다.	0(0)
	어느 정도 충분했다.	29(18.4)
	충분하지 못했다.	118(74.7)
	매우 충분하지 못했다.	11(7.0)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 서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 횟수	1회/년	13(8.2)
	2회/년	38(24.1)
	3회/년	19(12.0)
	4회/년	55(34.8)
	5회 이상/년	33(20.9)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 서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 시기	1학기 중	10(9.3)
	여름 방학	49(31.0)
	2학기 중	9(5.7)
	겨울 방학	35(22.2)
	언제라도 상관없다.	55(34.8)
	계	158(100)

표 14. 전문물리치료 현실에 대한 인식도

	항목	빈도 (%)
근·골격계 및 신경계 영역에 집중되는 이유	활용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121(76.6)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7(4.4)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9(5.7)
	물리치료사의 법적, 제도적 한계성 때문에	21(13.3)
	기타	0(0)
	계	158(100)

6) 전문물리치료의 현실에 대한 인식도

현재 국내의 전문물리치료 영역 및 분과
학회 활동이 근·골격계 및 신경계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에 활
용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이 76.6%로 가장

높았다(표 14).

7)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현재 대체의학의 발전과 관심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학문영역들이 생

표 15.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항목		빈도(%)
물리치료 영역 확대 에 대한 생각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124(78.5)
	현재의 영역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23(14.6)
	영역 축소가 필요하다.	2(1.3)
	잘 모르겠다.	9(5.7)
	기타	0(0)
대체 물리 치료에 대 한 생각	관심이 많고 공부해보고 싶다.	91(57.6)
	관심은 있지만,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29(18.4)
	관심 없다.	9(5.7)
	잘 모르겠다.	24(15.2)
	기타	5(3.2)
계		158(100)

겨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물리치료 영역의 확대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물음에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78.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영역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물음에 관심이 많고 공부해보고 싶다 57.6%로 가장 높았다(표 15).

고 찰

부산·울산·경남의 물리치료(학)과 졸업반 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학업을 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관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학부과정에서보다 좀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혹은 전문적인 학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고시 위주의 현 학부교과과정의 학습이 전문가로서의 물리치료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치료대상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물리치료사로서의 사회봉사와 올바른 윤리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도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학업에 대한 욕구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에 있어서도 24세 이상의 학생들이 24세 미만의 학생들에 비해 학업 욕구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물리치료과 졸업반 학생들은 ABPTS의 분류에 의한 7개 전문물리치료 영역(전기·광선,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노인, 스포츠, 심·폐 물리치료)에 있어 노인물리치료, 심·폐 물리치료 영역이

60%대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영역에 있어서는 근·골격계, 신경계 영역만이 60%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물리치료, 심·폐 물리치료 영역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결과로 나타나 학생신분로서는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교과과정에서 접해본 전문물리치료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나 각 학교마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기·광선, 근·골격계, 신경계 물리치료 영역 등의 국가고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5개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 물리치료, 심·폐 물리치료 영역에 있어서는 각 1개 학교만이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5개 학교의 학부과정에서는 모든 전문물리치료 영역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행 국가고시 제도와 물리치료(학)과의 교과과정 3년제 교양 15~16학점 전공 104~105학점 4년제 교양 40학점 전공 100학점이상 이수(1993, 배성수 외) 등의 교육제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BPTS의 분류와 달리 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 분과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학생들은 보바스 물리치료 분과학회, 정형 물리치료분과학회, PNF물리치료 분과학회 등은 90%대의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테이핑 대체물리치료 74.7%, 스포츠,

MFR, 칼텐보르 예비엔스, 척추교정, 노인 물리치료분과학회 등이 40~50%대의 인식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 나머지 분과학회 및 연구회는 학생들에게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물리치료 분과학회 및 연구회에 대한 조사의 결과로는 모든 분과학회 및 연구회가 50% 이하로 나타나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활동 및 운영이 업무에 종사중인 물리치료사들에만 치우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요구가 확대되어짐에 따라 국내대학의 물리치료(학)과 개설이 급증하였으며, 대학원에서의 물리치료학 전공과정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물리치료 교육의 질적 향상과 물리치료사들 스스로의 자기발전과 노력을 통해 선진국과의 수준 차이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진국과 국내 물리치료 및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수준 차이가 크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정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물리치료에 비해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수준차이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90% 이상의 학생들이 크게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학생의 신분에서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질문에 응한 많은 학생들이 ABPTS분류방식 혹은 ABPTS의 분류와 국내 분과학회의 혼합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 국내의 분과학회 운영방식을 선호하는 학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물리

치료 영역의 현 국내 분과학회별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전문 물리치료 영역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가장 흥미 있고 재미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가장 관심이 적은 영역에 있어서는 심·폐 물리치료, 전기·광선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남, 여 모두 근·골격계 물리치료 영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타 영역에 비해 근·골격계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물리치료 영역 등을 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 물리치료 영역에 있어서는 남·여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가장 관심이 적은 영역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관심이 많은 영역으로 나타나 아동들에 대한 여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교육에 있어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 과정 모두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2배로 나타났으며, 90%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에서의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혹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의 학부과정과 임상실습과정에서의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부과정과 임상실습과정에서의 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교육의 정도에 있어서는 개념과 기초과정 정도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수준에 맞게, 또한 다양한 전문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학업은 관련학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분과학회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분과학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소극적이라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교육 횟수와 시기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횟수는 4회/년, 5회/년 이상이 55.7%로 나타났고, 시기에 있어서도 언제라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건에 상관없이 현재보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지기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분과학회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을 위한 소개강좌 혹은 기초강좌의 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홍보 강화와 초기교육 강화를 통한다면 보다 우수한 인력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관심이 근·골격계, 신경계 영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현재의 활용빈도 즉 사회적 요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화될 것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학 및 대체의학의 발전됨에 따

라 물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다양화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활용도가 높은 전문물리치료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물리치료 영역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현재 많이 생겨나고 있는 대체 물리치료의 활성화를 통해 물리치료 영역,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확대 및 발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결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졸업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를 알기 위해 설문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졸업 후 물리치료 분야의 학습에 관련된 사항에서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여자의 경우 여건이 된다면 하겠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고, 남자의 경우는 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게 나왔다.

2.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한 인식도에서 심·폐 물리치료와 노인 물리치료가 각각 62.0%, 69.6%로 타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왔다.

3. 전문물리치료영역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남 68.6%, 여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는 남자는 소아물리치료가 41.2%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심·폐 물리치료가 41.0%로 가장 높았다.

4. 학부과정에서의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했다가 60.8%로 가장 많았다.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에서의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58.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졸업 후 전문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한다면 관련 학회를 통해서가 59.5%로 가장 높았다.

전문 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했다가 7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이 실시된다면 4회/년 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이 실시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라도 상관없다가 34.8%, 여름 방학 31.0%, 겨울 방학 22.2%로 가장 높게 나왔다.

5.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에서, 물리치료영역의 확대에 관한 생각에는 영역확대가 필요하다가 78.5%로 가장 높았고, 대체 물리치료에 대한 생각으로는 관심이 많고, 공부해 보고 싶다가 57.6%로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 및 고찰을 통하여 살펴 볼 때, 부산·울산·경남 지역 졸업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물리치료 및 전문물리치료 영역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부과정 및 임상실습 그리고 전문물리치료 및 분과학회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부과정과 임상실습 및 각 분과

학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김은주, 남재만, 이승민, 배성수: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1998. 7.

김찬문, 전유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거점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2(3), 2000

대통령령. 제10932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982. 10. 13 개정.

문교부: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1984.

민경옥, 김순희, 박래준: 질환별 물리치료 (I). 대학서림, 1997.

박래준, 배성수: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진로,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0(1), 1998.

임채용 외 10명: 김천 시민의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학회지, 15; 68-88, 1999

홍완성: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WCPT: Principles and Guidance for Initiating the Training of Physical Therapist, p12-28, 1981.